



## “우리는 너나 없는 이웃”

### 불기2555년 봉축 법요식 전국서 봉행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남북공동법회는 정부의 불허로 무산됐지만 이날 법요식에서는 남측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불교 공동발원문’ 이 낭독돼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주관한 조계사 법요식에는 종정 법전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 천주교 주교회의 이기락 사무처장,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등 이웃종교인들과 주한 외교사절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계종 방침에 따라 초청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박진·조윤선·나경원 의원 등 정치인들은 예년과 달리 단상이 아닌 대중석에 자리했다. 정치인을 대신해 단상에는 사회 소외계층, 복지시설 종사자, 다문화 가족 등이 자리했다.

법요식은 종성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명고·명종의식으로 시작돼 도량결계식, 육법공양의식으로 시작했다.

예년과 달리 대통령 봉축 축하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의 스님 3500여 명에게 “찬란한 전통문화와 예술, 자비, 상생과 화합은 한국불교의 3가지 미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 위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라는 내용의 봉축사를 발표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지역불교를 살리자

### 체계적 교육시스템 통해 새로운 포교 방향 설정해야

지역불교는 변방이 아니다. 우리나라 불자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권이 아닌 영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불교는 한국불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본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도권, 강원·충청, 영남, 호남, 제주·섬 등 전국 5대 권역의 지역포교 일꾼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지역불교를 진단했다.

관련기사 4·6·7·8·9면

지역불교는 대부분 청년 불자 감소와 이를 극복할 교육 및 포교방안 부재를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충청불교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많은 수의 사찰들이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교 및 전법활동의 중심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지역의 조계종 교구 본사만 해도 지역의 대도시인 대전과 거리가 멀다보니 포교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대전시청을 중심으로 성대하게 열렸던 지난 해 봉축 행사와 달리 올해 대전시 봉축행사는 지역 내 공원에서 개최됐다.

강원불교는 템플스테이가 세계

적 문화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호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수많은 관광객과 재가자들이 강원도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있지만, 지나친 상업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인구의 절반이 불자라는 영남 지역은 그 위상과 달리 기록신앙과 신행활동에만 치중돼 있었다. 불교계 NGO들도 부산·경남 지부 개설은 아직 미흡하다. 영남 지역 불자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사찰들은 개별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결집과 정보 공유에는 소홀했다.

호남불교는 전국에서 불교세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다. 경남과 전북의 불교 인구는 3배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 반면 이웃 종교는 호남 지역에 가장 많은 신도들이 분포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불교는 이웃 종교에 밀려 열세였던 지역 복지에서 최근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약천사 자광원 등 복지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 하면서 복지를 통한 포교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도서 지역도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섬 포교는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펼치는 개신교에 잠시 당한지 오래다. 전국 400여 유인도에서 600개의 교회가 활동 중이지만 사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광주지역 10여 신행단체들로 구성된 ‘섬불교 포교단’이 지난해 발족해 낙도 포교에 나서고 있다.

전국 각지의 불교계 인사들은 일련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청년 불자 발굴과 교육 시스템 강화를 꼽았다.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과 포교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지역 안병욱 포교사 단장은 “교육 수준이 예전 방식에 머무르고 있고, 스님과 신도들이 기복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군포교, 병원 병당 등을 위주로 젊은 불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동원 이사장 심산 스님은 “불교 교육 심화와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시사교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 내포가야산 위해 손 잡았다

### 조계사, 문화결사 실천 방안으로 수덕사와 협력키로

서울 조계사와 예산 수덕사가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가 교구본사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지역 사찰과 직할 교구가 협력하는 새로운 사례로 눈길을 끈다.

조계사(주지 토진)는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을 종단의 ‘문화결사’를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내포가야산 성역화 사업’은 조계종 제7교구본사인 예산 수덕사와 서산 보원사가 2004년부터 교구 차원에서 민족성지를 지키고자 노력해 온 사업이다. 내포가야산은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터가 있는 곳이다. 보원사는 통일신라시대 화엄교의 하나로 고려 광종 때 왕사였던 법인국사가 주석했던 도량이다. 특히 우리나라 길지 중 하나로 지금은 남연군묘가 된 가야사터가 있는 우리 민족문화인 불교문화의 특구라 평가받는 곳이다.

그러나 내포가야산은 조선시대 송유역불정적으로 보원사가 폐사되고, 흥선대원군에 의해 불태워지면서 사라지는 등 권력에 의한

침탈로 소실됐다. 조계사와 수덕사, 보원사는 수덕사 방장인 설정 큰스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추진준비위를 구성해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추진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은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이 맡는다. 준비위원 공동대표는 정목 스님과 주경 스님, 준비위원 상임대표는 정경 스님이 위촉됐다.

추진위는 성역화사업을 위해 한꺼번에 반결재임을 비롯해 주기적으로 수덕사 사부대중을 비롯해 ‘문화결사’의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백제의 미소길 걷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수덕사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의 하나인 문화결사를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실천 행위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초조대장경 특별전

### 초조대장경만 한자리 모이기는 처음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은 ‘1011~2011 천년의 기다림, 초조대장경’ 특별전을 개최한다. 행사는 신사분관에서 5월 18일~8월 31일, 신림본관에서 5월 30일~9월 30일 열린다.

호림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초조대장경,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 사경대장경(寫經大藏經), 사간본(寺刊本), 외국대장경(外國大藏經) 등 국보 4

건, 보물 12건 등 1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초조대장경은 이제까지 다른 전시에서 한 두 점씩 선보인 적은 있으나 이번 전시처럼 대규모 전시회는 처음이다.

호림박물관은 “초조대장경의 판각을 시작한지 꼭 천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836호 CONTENTS

봉축 특집 기획 2~3  
히말라야를 가다



봉은사 선지식 법회 11~13  
도영·성우·혜중 스님



특집·북한사찰 18  
불교 문화재는 남북을 잇는 다리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박물관 · 침향양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뒷문편)  
본사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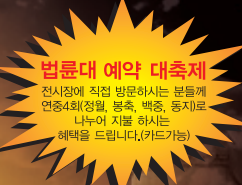
###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등으로 활기...

#### 법륜대 특징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좌우 상감청자 코끼리에 새길 설판자 명단을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단 대죽제  
1인당 100원 정액으로 후원하여  
연4회(정월, 보름, 추석, 동지)로  
나누어 지출하시는  
법륜대 드림니다.(카드가능)